



## 근로시간 단축이 취재와 뉴스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취재관행과 뉴스생산에 대한 기자 인식을 중심으로\*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양영유**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특임교수\*\*\*

**신명환** 경성대학교 LINC+사업단 겸임교수\*\*\*\*

이 연구는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제도적 변화가 언론조직의 뉴스생산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됐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근무시간 단축이 기자 개인과 뉴스 조직 내부의 작업관행, 그리고 뉴스생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간신문사, 방송사, 뉴스 통신사에 근무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기자들은 취재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취재원과의 접촉 횟수가 감소했으며, 전통적인 취재방식인 대면 접촉을 통한 취재 방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자들은 조직 내부적으로 게이트키퍼가 부실화되고 있으며, 취재와 편집회의가 축소되었으며, 정보공유와 팀워크가 약화되고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기자들은 근무시간 제약으로 “현장 취재”가 소홀해지면서 감시견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우려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 저널리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취재원 접근과 관찰, 사실의 선택과 거름, 그리고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을 받았다 (DSU-20200009).

\*\* wonsoo1960@gmail.com

\*\*\* yangowner@naver.com

\*\*\*\* shin\_comm@naver.com

편집과 분배 관점에서 토론했다.

**KEYWORDS**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취재방식 변화, 뉴스생산 변화, 언론 생태계 변화

## 1. 연구목적

기자들에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자는 주어진 시간만큼 취재할 수 있고(취재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작성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기사를 송고해야 하며(마감시간), 그 결과로 나온 뉴스의 질적 수준 역시 총체적인 투입 시간에 비례한다(뉴스의 품질). 시간은 뉴스 조직의 데드라인(deadline)을 결정하는 물리적 제약요인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Shoemaker & Reese, 2013, 1996, p. 119). 정상적 근무시간 이외 일어난 사건/사고는 보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Tuchman, 1978). 그런 점에서 기자들의 모든 저널리즘적 직무활동은 시간과 연동되어 움직인다.

신문과 방송으로 대표되는 전통 언론들은 오랫동안 주간과 야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정해진 데드라인에 맞춰 종이신문을 만들고, 방송뉴스를 내보내야 하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왔다(Figueroa, 2017; Tuchman, 1978). 한국 언론사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sup>1)</sup>는 기자들에게는 곧 취재(또는 제작)시간 단축의 문제이자, 데드라인 단축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도한 근로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를 당연시 해왔던 한국 기자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작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이에 따라 뉴스생산 과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 기자사회에서는 그동안 “기자가 퇴근이 어디 있어”, “앞으면 기사작성, 일어서면 취재, 누우면 기획”이라는 말이 무용담처럼 전해올 정도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모든 일상이 취재활동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출근해

---

1)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부터는 모든 언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려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합산)으로 단축한 제도이다.

늦은 밤에 퇴근하거나, 밤샘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이나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한승구, 2018). 그런 한편으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뉴스 서비스를 표방하는 디지털 저널리즘이 보편화되면서 실질적인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김경모, 2012; 채윤경, 2018).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한국 언론들의 뉴스생산 과정이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 연구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시간은 저널리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시간과 저널리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충분히 다루지지 못했다(Zelizer, 2017). 기존 저널리즘 연구에서 시간의 문제는 주로 “마감시간(deadline)”의 관점에서 다루졌을 뿐(Bell, 1995; Tuchman, 1978), “근무시간 제약(constraint of working time)”이 뉴스 생산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진 예가 없다.<sup>2)</sup> 테드라인은 정해진 시간 안에 뉴스를 출고해야 한다는 하나의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자 개인은 물론 미디어 조직 전체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속한다(Paulussen, 2012). 근로시간 단축은 작업관행의 변화를 가져오고, 작업관행의 변화는 뉴스 콘텐츠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 영역에서 시간의 문제를 다루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첫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된 최근 1~2년 사이에 기자 개인의 노동환경이나 취재활동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는 기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미디어 조직내부의 작업관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셋째는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과 미디어 조직의 작업관행 변화가 뉴스 콘텐츠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했다.

---

2)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 생산과정에서 시간(time)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때 시간은 전적으로 테드라인(deadline)을 지칭했다.

위의 세 가지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 것은 저널리즘 연구의 핵심 사안이다. 언론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취재관행을 통해 뉴스라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뉴스 취재관행과 뉴스 생산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Becker & Vlad, 2009; Figueroa, 2017; Shoemaker & Reese, 2013; Westlund & Ekstrom, 2019; 김경모, 2012; 박재영 등, 2016). 이에 연구자들은 노동시간이라는 제도의 변화가 한국 언론조직의 취재 또는 뉴스생산 방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취재과정, 그리고 뉴스생산 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수용되어 왔던 미디어 조직의 작업관행과 뉴스생산에 대한 고전적 연구들(Gans, 2004; Tuchman 1978; Tumber, 1999; Whal-Jorgensen & Hanitzsch, 2009 참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해보는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한국 저널리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한국 언론사의 작업관행과 그 결과물인 뉴스생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간신문사, 방송사, 뉴스통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시간과 미디어 뉴스제작 관행

#### (1) 기자의 취재관행

기자들은 하루 단위로 일정한 취재관행에 따라 뉴스생산 활동을 하는 직

업인들이다(Willnat, Weaver, & Choi, 2013). 기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출입처 상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주요 아이টে를 데스크에 보고하고, 기사가 채택되면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가고,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송고하고, 신문(또는 방송)에 게재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Figueroa, 2017; Tuchman, 1978). 기자들은 다른 업종 근로자와는 달리 정해진 시간과 일정, 즉 규칙적인 작업관행에 따라 사회적 공공재인 뉴스를 생산한다. 기자들이 수행하는 기사정보의 수집과 작성, 그리고 확인의 과정은 전적으로 시간투입과 맞물려 돌아간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출입처(beats)로 출근해 출입처에서 퇴근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 시스템도 결국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이다(Magin & Maurer, 2019; Shoemaker & Reese, 1996; Tuchman, 1978). 출입처는 기자들이 뉴스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작업과정에 할당된 노동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유리하다(Becker & Vlad, 2009).

한국 언론사가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금까지 기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직무변화에 해당된다(김수지, 2018; 최승영, 2018). 기자들은 업무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출입처 방문이 줄어들고, 취재원과의 접촉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다.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적인 공간의 하나인 출입처 관리 역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느껴지기 쉽다(Figueroa, 2017). 기자들이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비중을 두는 출입처나 취재원 관리는 결국 취재 시간이라는 물리적 통제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Shoemaker & Reese, 1996). 근무시간 단축은 취재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취재활동이 시공간적으로, 또는 양적/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쫓는 특종(scoop)이나 단독보도도 자신의 취재영역이나 출입처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 없이는 하기 어렵다. 뉴스는 저널리스트와 취재원들 간의 끊임없는 거래의 산물이다(Ericson

et al., 1989, p.3). 기자들이 유용한 취재원과 고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의 빈번한 접촉이 필수적이다. 좋은 기사 발굴은 결국 기자가 시간을 내어 취재원(그것은 출입처 취재원일 수도 있고, 일반 취재원일 수도 있다)과 자주 만남으로써 가능하다.

기자가 현장이나 또는 출입처에서 어떤 취재원을 만나, 어느 정도 취재하고, 어떤 정보를 얻어서, 어떤 내용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다양성과 뉴스의 깊이가 결정된다(McQuail, 1986; Berkowitz, 1987; 방은주·김성태, 2014). 뉴스의 품질은 기자가 얼마나 많은 노동시간을 들여 취재활동을 수행했는가에 좌우된다. 따라서 기자들은 매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자신의 업무일정을 짜고, 취재활동을 한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언제 만날 것인지, 출입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사 품질 유지는 가능한지, 디지털 뉴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말뉴스는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이를 위한 인력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모든 취재활동은 시간배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가치 있는 뉴스가 발생해도 그 뉴스를 취재해 내보낼 시간에 담당 기자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Tuchman, 1978). 기자들이 어떤 뉴스 아이템을, 누구를 만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취재절차는 물론이고, 이를 보도할 지의 여부도 취재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Shoemaker & Reese, 2013; Tuchman, 1978).

기자 개인의 시간부족은 무엇보다 심층취재, 사실의 교차확인, 그리고 원작(originality)기사 생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김경모, 2012). 이런 이유 때문에 기자들은 거저 ‘얻어듣는 뉴스’의 공급자로 평가 절하되기도 한다(Quandt, 2008). 이처럼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전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마감시간은 언론사 조직 전체관행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자 개인의 기사송고에 관한 일정조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루 근무시간이 바뀌면 자연히 기자가 출고해야 하는 마감시간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뉴스생산 작업의 관행화는 일정

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사고나 재난사고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건/사고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자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조직의 근무시간 단축은 그런 “단절 없는 취재망(news net)”을 보장하지 못한다(Tuchman, 1978). 기자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보도하는 뉴스의 시의성(timeliness)을 맞추기 어렵다. 근로시간의 문제는 결국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취재활동의 범위는 미디어 조직내부의 뉴스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2) 미디어 조직의 제작관행

근로시간에 따른 업무관행 변화는 기자 개인 못지않게 언론사 조직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Daum & Scherer, 2018; Westlund & Ekstrom, 2019; 방은주·김성태, 2014). 업무시간 변화에 의해 파생되는 여러 조직적 요인들이 내부 구성원들의 업무관행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cker, 2004). 매일 반복적으로 뉴스를 생산해내야 하는 언론 조직 차원에서 보면, 작업관행(working practices)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Tuchman, 1978; Westlund & Ekstrom, 2019). 언론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전에 정해진 규칙 없이 뉴스를 대량 생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츠와 그의 연구동료들(Bantz, McCorkle, & Baade, 1981)이 뉴스룸을 조립라인과 비슷한 “뉴스공장(news factory)”으로 설명한 것도 뉴스 조직에서의 작업관행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레비트와 마치(Levitt & March, 1988)는 조직에서의 관행을 형태, 규칙, 절차, 관례, 전략,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일정한 작업관행이 그 조직의 업무일정과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관행(routines)의 개념을 “미디어 종사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반복적인 관례”로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이다(p. 100). 미디어 조직에서 관행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정한 절차와 합의된 규칙을 수반한 뉴스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Ryfe, 2016).

탠독과 더피(Tandoc & Duffy, 2018)는 최근 연구에서 뉴스생산에 적용되는 5단계 관행을 제시했는데, 이들 관행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첫째, 취재원과 출입처와 연결된 “접근과 관찰단계(access and observation stage)”, 둘째, 뉴스의 선택과 배제에 대한 “선택과 거름단계(selection and filtering stage)”, 셋째, 편집과 사실 확인에 대한 “편집과 과정단계(editing and processing stage)”, 넷째, 속보뉴스나 소셜미디어 정보유통에 관한 “분배단계(distribution st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설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석단계(analytic stage)” 등 5단계 관행이 뉴스생산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탠독과 더피의 뉴스 생산 5단계 관행은 취재원이나 출입처 관리문제, 뉴스의 선별문제, 뉴스의 사실 확인과정의 문제, 뉴스의 속보전달의 문제들로 모두 뉴스생산 조직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취재원 접촉이 줄어들고, 게이트키퍼 과정이 생략되며, 사실 확인의 과정이 사라지고, 정보전달 속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뉴스생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관행 가운데 하나가 마감시간(deadline)이다. 마감시간은 뉴스생산 조직에서 작업시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단축은 곧 마감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마감시간 단축은 기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취재를 계속하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된다(Shoemaker & Reese, 1996). 기자들은 마감시간에 맞춰 자신의 취재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할 기회를 잠정적으로 잃게 될 수도 있다(Tuchman, 1977). 이에 대해 섯슨(Schudson, 1986)은 뉴스 조직은

시계(clock)의 초침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한 바 있다. 셋슨의 이런 관점은 뉴스생산 조직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철저히 지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대로 과거의 뉴스제작 과정은 작업 표준화에 따라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치, 또는 배분하는데 있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작업 시간”의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지배하는 오늘날은 시간에 따른 “선형적인 뉴스제작”보다는 “비선형적인 뉴스제작”과 같은 저널리즘의 자율적인 실천관행이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김경모, 2012). 예를 들어 뉴스 생산의 온라인화가 전통적인 게이트키퍼에 변화를 가져왔다거나, 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공간적 뉴스망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방은주와 김성태(2014)도 오늘날 기자들은 뉴스제작 과정에 소셜미디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재 효율성이나 이슈 파급성을 고려해 소셜미디어 활용을 수용한다고 말한다. 이는 기자들이 더 이상 정형화된 뉴스제작 관행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내부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표준화된 뉴스생산 관행이 전적으로 무시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뉴스의 오류 여부이다. 언론사 조직이 뉴스 생산과정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뉴스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다(Sigal, 1973). 언론사 조직은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만약 취재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실 확인이나 정확한 보도를 충실히 하기 어렵다(Tandoc & Duffy, 2018; 김경모, 2012).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생산해 공표한 뉴스가 혹시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언론사 뉴스를 참고하거나 의존하는데<sup>3)</sup>, 이것 역시 취재시간의 부족을 고려한 하나의 관행으로 볼 수 있

---

3) 미국 언론들의 경우 뉴욕타임스나 AP통신에 의존하는 내부 제작관행을 보인다는

다. 자사의 기사를 직접 보내 취재하기 보다는 이미 공인된 언론사의 뉴스를 토대로 기사를 재가공함으로써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확인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입장에서 취재시간 부족은 특정 언론사 뉴스에 더 의존하거나 참고하는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언론사들이 흔하게 인용하는 <연합뉴스> 기사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더 빈번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임종섭, 2019; 최영재, 2016).

시간의 문제는 언론사 조직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편집)회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언론사에서 정기적인 회의는 취재 아이템, 취재방향, 취재마감, 그리고 취재 지시사항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관행의 하나로 꼽힌다(Becker & Vlad, 2009; Tuchman, 1978; Shoemaker & Reese, 1996). 언론사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는 얼마나 길게, 그리고 자주 할 것인가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부서 간, 팀 간,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경우 하루 전체의 취재/작업 일정에서 할당된 시간을 통해 이뤄진다. 미디어 조직에서 회의는 시간 배분의 문제로 전체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회의횟수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치열한 대면미팅을 통해 이뤄졌던 부서 또는 팀 내 아이디어 발제 회의나 편집국장(또는 보도국장)이 주관하는 공식 편집회의도 모두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언론사 내부의 편집회의 방식이나 절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이완수·양영유·신명환, 2019). 더구나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소통방식이 최근 일반화되면서 업무지시 방식이나 회의운영 방식에도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Mont'Alverne & Marques, 2019; 이완수 등, 2019). 회의 방식이 점차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

연구결과가 있으며(Crouse, 1972; Johnston & Forde, 2009), 국내 연구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통신사의 뉴스를 참고하거나 재가공해 뉴스를 생산한다는 증거가 있다(임종섭, 2019; 최영재, 2016).

간접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 했듯이 조직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뉴스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맞춰진다. 뉴스생산 과정에서 작동하는 미디어 조직의 여러 관행들이나 위계적 통제도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이라는 근무시간 변화는 언론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왔던 사회적 통제가 느슨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사 조직으로부터의 감시나 감독의 약화, 출퇴근 시간의 엄격성 약화, 조직 내 간부와의 대면 접촉 감소, 회의시간 단축이나 감소 등 여러 내부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근무시간 단축의 문제는 단순히 언론사 조직의 뉴스제작 관행의 변화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언론사 조직의 뉴스제작 관행은 뉴스콘텐츠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 3) 시간과 뉴스생산 시스템 변화

#### (1) 뉴스생산 시스템 변화

기자와 그들이 일하는 미디어 조직은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매일 매일 뉴스를 생산한다. 뉴스는 개인적 생산물이면서, 동시에 조직적 생산물이기도 하다(Becker & Vlad, 2009; Vos, 2015). 섯슨(Schudson, 2002)은 뉴스생산을 세 가지 관점, 즉 정치경제적 관점, 직무적 혹은 조직적 관점, 그리고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들 세 가지 관점은 서로 구분되지 않지만(Becker & Vlad, 2009),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두 번째의 직무적 또는 조직적 관점에 집중해 뉴스생산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미디어 생태계에서 직무적 또는 조직적 관점은 기자 개인의 작업방식과 함께 미디어 조직전체의 작업관행을 포괄한다(Epstein, 1974, Westlund & Erksstrom, 2019; 방은주·김성태, 20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틀이 게이트키피ング 이론이다. 게이트키피ング은 1940년대에 심리학자 레빈(Lewin, 1947)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편집하고, 위치 짓고, 일정을 조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걸러내 뉴스를 만드는 일련의 작업행위이다(Reese, 2008). 정보를 수집하고 걸러내는 절차인 게이트키피ング은 기자 개인의 취재과정의 문제이자, 조직 전체의 작업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Vos, 2015). 따라서 게이트키피ング은 아무 원칙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게이트키피ング은 패턴화, 관행화, 내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직 내 절차와 양식의 하나로 “제한된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속한다(Shoemaker & Reese, 1996; Shoemaker & Vos, 2009).

근로시간 단축은 뉴스생산을 위한 게이트키피ン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한 작업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키피ング은 다른 어떤 뉴스생산 부분보다 업무시간의 많고, 적음으로부터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1차적으로 기자의 정보수집 과정이 소홀해지고, 나아가 조직 내부의 2차 게이트키피ング 과정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뉴스생산 과정에 있어 게이트키피ング은 시간의 투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게이트키피ング의 목적은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해 뉴스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있다(Gans, 1979). 이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사실 확인, 즉 팩트체킹(fact-checking)과 취재절차에 대한 투명성 여부이다(McBride & Rosenstiel, 2014).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는 ‘팩트체크 원칙규정(code of principles)’<sup>4)</sup>을 통해 뉴스작성 과정에 비당파성과 공정성, 자료 출처의 투명성, 재원 및 조직의 투명성, 기사 작성 방법의 투명성, 수정의 투명성과 같은 절차

---

4) <https://ifncodeofprinciples.poynter.org/>

요소를 강조한다(김준일, 2019). 이 같은 팩트체킹 기준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되는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할 준칙으로 간주된다. 기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은 이런 사실성과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나 사건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미디어 조직차원에서 보면, 게이트키퍼 과정은 제작인력이나 제작시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Shoemaker, Vos, & Reese, 2009). 작업시간이 제한을 받으면, 뉴스의 정확성이나 투명성 같은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어렵다. 즉, 제작인력이나 제작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게이트키퍼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모든 정보수집과 취재, 그리고 사후적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게이트키퍼 과정은 시간의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홍수 속에서는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와 같은 식의 단순 전달자로서의 보도가 아니라, 그러한 발언과 행위의 맥락이 무엇인지, 과연 팩트라고 믿어도 좋을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작업시간은 필수적이다. 뉴스의 다양성, 사실성, 공정성이라는 뉴스품질도 결국은 시간을 두고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Gans, 1979). 실시간으로 뉴스를 내보내야 하는 온라인 매체들이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게이트키퍼를 생략하는 것도 뉴스를 바로 바로 내보내야 하는 시간의 제약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뉴스생산을 가능케 했던 작업 표준화 방식이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김경모, 2012)도 같은 맥락이다. 바람직한 저널리즘은 단순한 사실 보도에서 맥락적 보도로 해석주의적인 전환(interpretative turn)이 필요하지만(Barnhurst & Mutz, 1997), 이런 보도규범은 시간부족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기자들은 뉴스 생산자로서 정확성과 균형성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다(최영준, 2018). 하지만 이러한 보도규범들은 취재와 기사작성 기간이

빠듯하고 데드라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터크만(Tuchman, 1972)도 “일의 사회학(sociology of work)”이라는 책에서 조직 내부의 업무통제가 뉴스 생산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크만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통제는 기자들의 작업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제약에 관한 것으로 뉴스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2) 뉴스 생산물 변화

뉴스는 결국 시간을 투입한 작업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생산물이다. 뉴스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최종 결과물로서의 뉴스상품 수준이 결정된다. 뉴스 생산물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콘텐츠에 대한 분석(김지은 등, 2016), 취재보도 관행과 뉴스생산 과정의 변화(김경희, 2009; 김사승, 2011; 김은미·김경모·김예란·임영호, 2007), 그리고 뉴스 품질의 조건에 대한 논의들(김경모 등, 2018; 박재영·이완수, 2007)에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뉴스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time)”이라는 자원과 뉴스 결과물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뉴스는 앞서 설명한 대로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 미디어 조직 내부의 제작관행, 그리고 정해진 작업시스템을 거쳐 생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스를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 못지않게 뉴스 생산물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신문 지면의 한계나 편집 시간과 같은 제약으로 기자 개인의 관점이나 가치가 뉴스내용에 반영되어 주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Schudson, 2001). 뉴스 결과물은 미디어 조직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 학자들은 뉴스 결과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생산량, 기사길이, 기사유형, 기사 투명성, 기사 다양성, 기사 현장성 등 주로 시간적 요인이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뉴스 품질에 대한 기존 연구 가운데 이재경(2006)은 신문의 기사길

이와 취재원수를 강조했으며, 김경모 등과 그의 연구동료들(2018), 그리고 박재영과 이완수(2007)는 기사분량, 정보의 독창성, 기사의 심층성, 관점의 다양성, 토대 정보의 신뢰성, 이해 당사자 수, 무주체 피동형 문장 수, 투명 취재원 수, 투명 취재원 수, 이해 당사자 수, 관점의 복잡성 등을 뉴스 품질수준에 미치는 요소로 파악한다. 이들 연구자가 제시하는 뉴스 품질 요소는 한 마디로 기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투명한 취재원을 인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 기사의 관점을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포함한다.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물인 뉴스는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성 검증과 함께 투명성 요소도 중요하다 (McBride & Rosenstiel, 2014). 뉴스의 사실성과 투명성은 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투입은 불가피하다. 취재할 시간이 많을수록 뉴스의 사실 확인 작업은 더 충실해질 수 있다(Vos, 2015). 이런 뉴스의 품질요소는 전적으로 취재시간이라는 노동투입량에 영향을 받는다. 작업시간이 길수록 뉴스의 길이, 취재원수, 기사건수, 정보의 독창성, 뉴스의 다양성과 심층성, 관점의 다양성, 그리고 기사의 투명성 등 뉴스의 생산적 조건은 더 충실하게 갖춰질 수 있다.

시간이 뉴스에 미치는 영향은 뉴스의 내용 측면에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요소는 뉴스의 유형과 같은 형식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사 생산 건수, 심층기획이나 탐사보도와 같이 시간과 인력과 품이 많이 드는 롱텀 저널리즘(long term journalism),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 사실과 칼럼, 경성기사와 연성기사 등 그 구조나 스타일 같은 뉴스 형식을 어떻게 제작해 전달할 것인지는 모두 시간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sup>5)</sup> 예를 들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기사를 빨리 전달

---

5) 남재일(2008)은 취재관행에 따른 기사의 도식화를 분석했고, 박재영과 이완수(2008)는 기사구조(예: 역피라미드식 기사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밝혀냈다. 뉴스 텍스트가 아닌 영상, 사진, 편집과 관련된 뉴스의 형식을 연구한 사례도 있다(김수정, 2003; 민병현, 백선기, 2009; 최윤정, 2008; 홍경수, 2009). 스트레이트 기사와 내러티브 기사 유형의 구성 비율(김경모 등, 2018; 송상근·박재영, 2009; 안수찬,



해야 하는 경성뉴스는 속보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성뉴스에 비해 시간적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McQuail, 2010). 결론적으로 노동시간은 언론 조직에서 산출하는 뉴스의 내용과 형식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기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일 근무제, 초과근무 등 작업 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뉴스 콘텐츠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주목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이런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위에서 논의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업무시간 단축이 취재 시스템의 변화와 뉴스생산 양식의 변화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자 인터뷰를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대로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기자들의 취재시간 단축에 따라 뉴스생산의 일차적 작업인 취재절차와 취재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취재방식의 변화는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2013)가 개념화한 뉴스생산 관행에 대한 계층 모델 가운데 개인적 차원을 통해 다뤄보고자 한다. 개인적 차원은 기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이 제한 받는 요인들이다. 개인적 차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재시간, 취재수단, 취재원 관리, 취재

---

2007; 이기형, 2010)이나 일반 기사와 칼럼의 편집 구성 배분(박재영 등, 2016)도 뉴스 형식에 관한 연구에 속한다.

원 편중, 취재약속, 보도자료 활용, 뉴스가치 기준 판단, 뉴스 생산량 등 개인 기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영역이다.

### 연구문제 1: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개인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미디어 조직내부의 제작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도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2013)가 개념화한 뉴스생산 동심원 모델 가운데 조직적 차원을 적용해 살펴본다. 조직적 차원은 기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언론사 내부조직인 편집국이나 보도국 안에서 일어나는 관행 변화나 통제요인들에 관한 것들이다. 미디어 조직내부 제작관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마감시간, 회의시간, 게이트키퍼 변화, 커뮤니케이션 수단(예: 카카오톡 활용 등), 뉴스룸 통제 요인과 변화(예: 간부의 지시문화 변화 등), 뉴스통신사 활용 빈도, 외부 전문가 활용 빈도, 매체축소(예: 주말판 폐지) 등이다.

### 연구문제 2: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미디어 조직내부의 제작관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자들의 취재방식과 언론사 내부조직의 제작관행 변화가 뉴스콘텐츠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뉴스콘텐츠는 크게 뉴스형식 측면과 뉴스내용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형식은 뉴스 유형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는 줄고, 대신에 칼럼 등이 증가하는지, 일반 기사 대신에 영상이나 사진 기사 뉴스가 증가하는지에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 내용은 뉴스 품질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뉴

스 아이템의 다양성, 뉴스 심층성(예: 탐사보도물, 호흡이 긴 기사 등), 뉴스의 투명성, 뉴스 사실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뉴스 다양성은 기사 주제(토픽)가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뉴스 심층성은 뉴스의 길이와 취재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뉴스의 투명성은 취재 과정에 대한 절차의 공개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뉴스 사실성은 사실 기사와 의견기사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문제 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뉴스 생산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3. 연구방법

#### 1) 인터뷰 대상의 선정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사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기자개인의 취재방식, 언론 조직내부의 제작관행, 그리고 이들 요인들이 뉴스생산에 미치는 제작현실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뉴스 생산자인 기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시도한다. 심층 인터뷰는 경험적 사회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조사문제를 심층적이고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 연구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연구방법의 하나이다(조창호, 2020).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과 뉴스생산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청문(聽聞)연구는 심층 인터뷰가 가장 적절하다. 심층 인터뷰에는 연구자의 한 명인 진행자(moderator)를 포함해 국내 대표적인 종합 일간지 5명, 경제 전문 일간지 2명, 지상파 및 종합편성방송 매체 3명,

통신사 1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인터뷰 대상에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뉴스통신사 종사자 가운데 연차가 6년 된 일선 평기자부터 연차가 24년 된 부국장에 이르는 다양한 직급의 기자를 포함했다. 소속 기자의 부서도 정치·경제·사회·스포츠부 등 다양하게 포함했다. 11명의 기자는 연구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기자들로 매체의 성격, 기자의 출입처, 연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만나 동의를 구한 뒤 최종 선정했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이들이 심층 인터뷰 과정에 평소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깊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뉴스생산 과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크게 4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첫째, 기자 개인의 취재 방식 전반의 변화 양상이다. 근무시간 및 취재원 접촉 시간, 출입처 이용, 취재 방법 등 기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근무 방식의 변화에 관한 것들이다. 둘째, 미디어 조직 내부의 관행 변화를 검토했다. 즉, 뉴스의 게이트키퍼링이나 회의 방식, 데드라인, 기자와 부서 간 협업, 취재부서와 경영부서 간 관계의 변화 등을 다뤘다. 뉴스의 편집 권한을 가진 데스크와의 업무조율 방식, 취재지시 방법, 동료 기자와의 협조와 갈등, 뉴스 마감 시간 등 매체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언론사 조직내부의 제작관행의 변화를 알아 보기위한 것이다. 셋째, 뉴스 생산방식 또는 결과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기자의 기사 생산건수, 사실 위주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위주의 기사 생산비율, 뉴스 아이탬의 다양성과 투명성, 기사 포맷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뉴스 제작 성과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취재방식의 변화가 실제 뉴스생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심층 인터뷰 수행에서 구조화된 질문지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자유롭게

많이 반영하도록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의 소속, 직위, 연차, 그리고 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1. 주 52시간 심층면접 인터뷰 대상자**

성명	소속 언론사	직책	연차	담당분야
A	종합일간지	부장	25	경제부
B	종합일간지	부장	25	스포츠부
C	종합일간지	차장	20	경제부
D	종합일간지	기자	13	사회부
E	종합일간지	기자	12	사회부
F	경제일간지	부국장	24	정치부
G	경제일간지	기자	10	사회부
H	통신사	부장	23	경제부
I	방송사	차장	18	정치부
J	방송사	기자	14	사회부
K	방송사	기자	6	정치부

## 2) 인터뷰 절차와 방법

심층 인터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1차로 인터뷰 대상자로 정해진 11명 전원에게 구조화된 사전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 해당 항목에 자세하게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인터뷰 주요 내용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취재환경의 변화, 기자의 근무 여건, 취재관행 변화, 뉴스 제작 방식, 뉴스 생산 구조, 뉴스 품질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2차로 응답 내용에 기초해 추가로 5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직접 대면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한 명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계로 상호 간에 친밀감(rapport)을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조직 내부의 깊은 이야기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1회는 2명, 2회는 2명, 3회는 1명으로 면접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인터뷰는 주로 조용한 카페나 음식점에서 진행했으며, 방법은 동일

하게 진행했다. 1회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하고 이를 텍스트 형식으로 풀어서 기술했다.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가 답변을 듣고 내용을 보완했다. 인터뷰는 다년간 기자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1명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 연구자의 이런 직업적 배경은 이 연구의 핵심 과제인 기자들의 작업관행에 대한 질문 내용의 구성은 물론 인터뷰 진행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기자들의 근무 방식과 주 52시간제가 야기할 수 있는 취재와 뉴스 제작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4항목 25문항의 구조화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sup>6)</sup> 연구 내용의 기술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발언에 기초해 표현이 중복되거나 언술 또는 어법이 문법에 현격히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현과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 4. 연구결과

### 1) 개인기자의 취재방식 변화

이 연구는 먼저 주 52시간 도입 이후 기자 개인의 취재방식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기자의 개인적인 취재 방식이나 근무시간, 취재원 접촉 등은 기자의 근무환경 및 뉴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일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 매체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 대부분이 취재방식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

---

6) 기자 인터뷰 설문은 취재시간, 취재원 접촉, 취재방법과 같은 기자 개인의 취재관행, 출퇴근, 팀워크, 회의, 게이트키퍼, 내부 통제 등에 대한 조직의 제약관행, 그리고 기사 생산건수, 기사 유형과 포맷, 기사 다양성과 투명성과 같은 뉴스생산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재시간과 취재원 접촉 횟수가 감소했으며, 대면 접촉과 같은 전통적인 취재방식이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취재시간 부족으로 업무강도 및 취재 압박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취재시간과 취재원 대면 접촉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달랐다. 기사 생산량이나 기사의 질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높이고 고정적인 출퇴근으로 개인시간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답변자도 있었다. 한편, 기사 생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업무강도나 업무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가운데, 마감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업무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 (1) 취재시간 변화

면접에 참여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 52시간 도입 이전의 근무시간을 먼저 질문해 본 결과, 정치부나 사회부 기사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에 이르렀으며, 국정감사 기간이나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종합일간지 D·E기자, 방송사 J차장).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60시간은 기본이고, 주말 격주 휴무로 주 6일 근무할 경우엔 70시간을 넘었다. 데스크(부장)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11시까지 남아 있는 근무 관행이 일반적이었고, 주 6일 근무를 밥 먹듯 하는 게 데스크의 임무로 당연하게 여겼다(종합일간지 A부장, 경제일간지 F부국장, 통신사 H부장).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치부와 사회부 현장기자들은 주 5일 기준으로 평균 8시간, 데스크들은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마감시간과 취재시간이었다.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마감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이나 야간 취재가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늦게 출근

하고 빠르게 퇴근하며, 부서에 따라 야근이나 추가 근무시간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취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취재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재경쟁도 예전만 못하다는 견해도 다수 제기됐다.

“마감 시간이 전반적으로 당겨졌어요. 온라인 강화로 지면제작 기준이 아닌 상시 마감 체제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기사 마감 일정이 앞당겨진 거죠. 근무시간이 예전보다 줄어 늦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조국 사태 때는 후배에게 조국 자택 주변에서 ‘뺨치기’를 시켰는데 밤 8시가 되자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그냥 퇴근하는 후배도 있을 정도니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전 같으면 엄청 혼났을 텐데 말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죠.” (종합일간지 E기자)

“사실 취재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능한 업무 시간 안에서 밀도 있게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취재원과의 저녁 약속이 줄다보니 공적인 취재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편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소위 ‘오프더레코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스트레이트 특종 경쟁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종합일간지 D기자)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시행되고 있는 근무 탄력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부서와 담당 취재영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 다 다른데, 주 52시간 도입 이후 이런 취재현실이 반영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기자는 “사건이 기자들의 근무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주 52시간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종합일간지 E기자). 취재원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드는 것



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로 지적됐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일 수시로 사건이 터지고 다양한 이슈를 취재해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특성상 취재 현장에서 52시간제를 고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이나 강원도 산불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을 밤낮없이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52시간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기자들은 업무 성격상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어요. 특히 사건을 맡은 사회부나 외교 관계가 현안인 외교나 국방 담당 기자들이 특히 그렇죠. ‘그림자 노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자들의 숙명이잖아요.” (종합일간지 D기자)

“못 만나서가 아니라 부담이 돼서 안 만나는 것이죠. 기업체 홍보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 스스로도 기자를 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다보니 업무시간이 빠듯해 기자를 만나면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업무시간 외엔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에 그런 것 같아요. 자연히 취재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종합일간지 C차장)

## (2) 취재원 접촉과 출입처 이용 방식 변화

뉴스 제작에 있어 취재원과의 접촉은 매우 중요하다. 뉴스는 많은 경우 취재원과의 접촉을 통해 생산된다. 또 출입처는 취재원과 효과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재원과의 친밀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자들의 근무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취재원과의 접촉시간이나 대면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저녁식사 등 비공식적 만남이나 대면접촉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특

히 정치부나 사회부와 같이 야간 근무가 필요한 부서 근무자의 경우 취재원 접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대다수 기자가 출입처에 머무르는 시간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출입처 이용이 취재의 현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재원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자와 출입처 간의 협력관계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취재시간이 제한받는 가운데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뉴스 공유 풀(pool) 등 보다 다양한 취재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여론 파악 등이 기자의 추가적인 업무가 되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뺨치기(취재 대상을 만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나 ‘귀대기(비공개 현장의 정보를 듣기 위해 벽이나 문틈에 귀를 대고 몰래 듣기)’와 같은 열정취재는 이제 무용담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 경제인, 또는 소환 예정자 등이 취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기다리는 일이 일반적이었죠. 기자들은 전혀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자로 성장하는 훈련과정이라고도 생각했구요. 그런데 ‘기다리는 취재’ 시간도 근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방송사 I차장)

“솔직히 시간이 아까워 출입처에 꼬박꼬박 나갈 필요가 많지는 않아요. 출입처에 머무는 시간도, 이용하는 시간도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해요. 굳이 주 52시간제 때문만이 아니라 취재환경 변화 등으로 출입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하루 종일 카페에서 전화로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는 ‘카페 기자’가 더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때도 있거든요. 굳이 출입처를 통하지 않고도 자료를 얻거나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한 여론 파악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취재 방법이 아니거든요.”(종합일간지 A부장)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취재원과의 접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별한 취재 목적이 없는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만남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한 다수의 기자가 취재원과 유대 형성을 중시하는 국내 언론 특성상 취재원 접촉이 줄어들면서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기사 품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뉴스는 하나의 건축물이 되고, 기자와 취재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모양의 건축물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한다(Ericson, 1999)는 점에서 취재원과의 느슨한 관계는 뉴스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취재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약화됨으로써 기사 품질이나 정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Awad, 2006)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취재원과의 저녁 자리나 비공식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 네트워크 형성에 문제가 생겨요. 시니어 기자들은 기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많고, 새로 뚫어야 할 주니어 기자들은 네트워크가 쌓이지 않아 취재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도 문제죠.”(종합일간지 C차장)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정확히 목적을 정해 취재원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무대포’ 취재는 이전 안 통해요. 취재의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인 취재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제약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취재열정이 갈수록 식는다는 점이죠.”(통신사 H부장)

“근무시간 단축은 취재력이 약화되고, 양질의 기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에는 저녁 취재와 취재원과의 술자리를 통해 다음날 기사거리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게 훨씬 힘들어졌어요. 석간신문의 경우 양질의 기사는 고사하고, 다음날 쓸 기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다음날 보도자료나 정부부처 자료에 의존해 기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경제일간지 F부국장)

### (3) 취재방식의 변화

근무시간 단축 이후 구체적인 취재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취재방법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취재방법의 변화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해당매체의 특성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의 정도, 기자의 출입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무시간 단축 이후 취재방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대면 직접취재가 줄어들면서 소셜미디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뉴스를 이용하는 관행이 더 늘어났다는 의견도 보였다. 취재시간이 줄면서 기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뉴스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뉴스를 제작하는 관행이 늘고 있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중심이 되고 있는 디지털 작업환경이 강조되면서 소셜미디어 이용과 <연합뉴스> 활용도가 커진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특히 언론사들이 24시간 뉴스 보도 체제와 경영 압박으로 뉴스통신사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Johnston & Forde, 2009).

“취재원과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고, 취재원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방식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어차피 <연합뉴스>기사는 게재료를 내고 쓸 수 있으니까, 단신 기사나 스트레이트는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취재시간을 아끼는 이점도 있고요. 대신 디지털 중심으로 속보 경쟁이 더 심해진 편이에요.”(중합일간지 E기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안 챙겨 물먹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럴 땐 정치부나 국제부는 정말 죽을 맛이죠. 기자들이 온라인도 챙기고, 직접 현장도 챙겨야 하고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일 못하는 것 같고….”(종합일간지 B부장)

절대적인 취재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 현장 취재나 대면 인터뷰 등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 부가적인 취재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들은 부서장이 근무시간 이후에 근로규정에 묶여 강제적으로 기자들에게 현장에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자연히 국내 언론들이 현장과 동떨어진 취재관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취재나 대면인터뷰는 확실히 줄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낮 시간에는 현장취재나 대면인터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가 문제이죠. 장관의 저녁 모임과 예정치 않은 인터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녁 때 이뤄지는 이런 일에 기자를 보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전 같으면 기자가 당연히 알아서 하거나, 부서장이 그냥 시키면 됐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밤에 일을 시키면 다음날 연차 보상이나 금전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당연히 이를 생각하면 개별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회사 압박도 심하고요.”(경제일간지 F국장)

“맞아요. 그 자리에 가든 안가든 기자 판단에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메가톤급 사안이나 특종 같은 사안은 다르지만요. 근무시간 이후에 있는 일상적인 자리나 정기적인 장관 저녁 브리핑이나 식사 자리, 또는 세종시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참 남감해요. 취재원과의 스킨십이 이래저래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종합일간지 A부장)

## 2) 미디어 내부조직의 제작관행 변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자의 노동시간 변화에 따라 언론사 내부조직의 취재관행에도 변화가 많아졌다. 그러나 기자의 기사작성 압박 등 제작환경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존의 취재방식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기자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뉴스생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더 커졌으며, 업무 부담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미디어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수습기자의 경찰서 숙식교육(일명 ‘하리꼬미’)가 불가능해졌어요. 수습기자를 뽑아 하리꼬미(사회부 사건 담당 수습기자에게 경찰서에서 숙식하며 취재훈련을 시킨다는 은어)를 시킬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디지털 중심으로 취재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도 많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는 눈이나 취재방법, 취재원 확보 요령을 신참 때 익히지 못해요. 물론 전적으로 주 52시간 때문만은 아니지만, 훈련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기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저널리즘의 수준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일간지 C차장)

“우리 때는 더 ‘했어’하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일을 먼저 끝냈어도 연차가 어리면 선배와 부장 눈치보다 퇴근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인사하고 그냥 가 버려요. 반대로 일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TV보면서 시간외 수당만 신청하는 암체족도 물론 없어졌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곧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주 52시간이 출퇴근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보면 되죠.” (방송사 J기자)

“체감노동 강도의 변화로 인한 조직 전체의 피로도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일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체감 노동 강도가 세졌어요. 더군다나 근무시간 도입 이전에는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날이었는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혹시 쉬는 날에 잔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왜 쉬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하나'하는 불평들이 나와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높은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요.”(경제일간지 E기자)

주목할 점은 저널리즘의 주요 가치인 뉴스의 정확성, 뉴스의 다양성, 뉴스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뷰 결과 언론사 내부적으로 근무시간이 줄면서 조직 내부의 1차, 2차 게이트키퍼 과정이 간소화되거나 아예 생략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게이트키퍼 과정의 변화는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디지털 중심의 언론 환경에 의해 더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데스크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사를 올려야 하는데 데스크를 예전처럼 꼼꼼하게 보지 않아요. 현장 팀장과 보조데스크, 데스크 등 3단계를 거치던 기존 관행이 현장 팀장 출고, 또는 보조 데스크나 데스크가 한 번에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만큼 확인과정이 줄어든 거지요. 어떤 때는 취재기자가 직접 온라인에 출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10년 전 입사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종합일간지 G기자)

“야근자가 줄면서 기존에 야간에 기사로 처리했던 기사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부를 예로 들면 과거엔 밤늦게 미국 지표(고용 등)가 발표되면, 다음날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판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야근자가 한 명으로 줄면서 그런 기사는 그냥 넘어가요. 중요하다 싶은 기사는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받아쓰는 경우도 생기고요. 데스크한

테 깨지면서 확인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종합일간지 C 기자)

“과거에는 타사 가관을 확인한 후 빠진 기사가 있으면 늦게라도 포함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지나쳐요. 내부적으로 속보를 워낙 강조하다보니 일단 출고하고 나중에 팩트를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선 출고”, “후 퇴고”를 하는 거죠. 꼭 주 52시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게이트키퍼가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통신사 H기자)

한편, 이와 같은 게이트키퍼 변화와 함께 언론사의 부서 간, 구성원 간 협력관계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팀원 간 또는 부서 간 협력관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조직 구성원 간의 취재협력이나 정보공유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업무회의나 내부 구성원 간의 대화시간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의 형식도 갈수록 간소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 52시간 도입 이후 팀원 간, 부서 간 협력관계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근무시간 제약’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전엔 밤늦게 또는 새벽이라고 해도 대형 사건이 생기면 기자는 데스크에게, 데스크는 편집국장에게 곧바로 보고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했어요.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이후에는 업무시간 외에는 지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출입처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대형사건이 터져도 선뜻 “이거, 이거 취재해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지요. 협력시스템이 자연히 약해지고,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경제일간지 F부국장)

“회의시간이나 횟수가 이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회의 방식도 바뀌었고요. 이전에는 무조건 대면회의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아요. 회의시간을 과외 업무 시간이라는 인식마저 있어요. 예전에는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하루 일과를 마친 이후 저녁 때 회사로 다 모여 회의하고, 저녁을 하면서 출입처에 있었던 일이면, 취재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관행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불평하는 기자도 거의 없어요.”(종합일간지 C차장)

### 3) 뉴스 생산방식과 결과의 변화

주 52시간제 도입과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온 취재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뉴스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당 기사 생산 건수와 지면이나 방송 형식의 변화, 기사의 길이, 기사 아이템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뷰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기사의 생산 건수와 길이가 감소하였으며, 심층취재 및 경성 뉴스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포맷이나 지면 구성 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방송 뉴스 등에서는 반대로 기자 1명이 처리해야 할 뉴스의 양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다수 기자들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뉴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 (1) 기사의 생산량과 길이

대부분 응답자가 근로시간 단축 이후 기사의 생산량과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업무 집중도는 높아졌지만, 절대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기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나 기획기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자가 느끼는 기사 생산 압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출입처에 있어 경제부서나 산업부서의 기사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에, 사회부나 정치부 등 현안을 속보로 보도해야하는 부서는 기사 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사 생산량과 별개로 기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자들이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됨에 따라 기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 52시간 이전에는 저녁에도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어요. 기자들은 누구나 퇴근시간이 따로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기자는 할 일이 있으면 새벽까지 남아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세상이 변했고, 규정상 기자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길이도 짧아졌고, 분량도 줄어들었고요. 주로 짧은 멘트나 속보 위주 기사를 쓰다 보니 심지어 500~600자 기사도 눈에 많이 띄기도 해요.”(종합일간지 C차장)

“뉴스포맷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는 1분 30초에서 1분 40초 리포트의 나열이었다면, 지금은 가능한 한 기자가 2분 내지 3분, 때로는 5분 넘는 기사를 소화하는 일도 있어요. 시간 늘이기를 위한 일종의 방편이죠. 또 당일 발생 사건은 되도록 간략하게 처리하고 미리 기획한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추세도 있어요. 시청자들이 심층보도를 원하는 이유도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이라고 봐요.”(방송사 J기자)

기사 생산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단순히 지면을 메우기 위한 기사작성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인력의 수급이나 지원이 어려운 가운데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기사 작성량이 증가하고, 이로써 기사 품질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2) 기사 소재

기사 소재의 다양성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시간적 제약과 기사 생산 압박이 기사의 현장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처 보도자료에 의존하거나 뉴스통신사 자료, 기자 간의 취재원 풀 등을 이용한 기사가 늘어나는 반면, 현장 취재비중은 줄어들었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사 아이템의 다양성을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도자료나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자들이 언론사 내부적으로 의견 중심의 칼럼이나 오피니언 기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취재시간 부족으로 현장기사 보다는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칼럼 기사를 더 실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한 응답자는 “근무시간 단축상황에서 칼럼이나 의견기사는 취재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제작 편의상 선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종합일간지 A부장). 이에 반해 일부 신문 기자들은 내부적으로 속보는 온라인으로 내보내고, 칼럼이나 의견기사는 오프라인으로 내보내는 이중 유통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발표자료 기사가 늘어났어요. 기자가 발품을 팔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파고드는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기사가 많아진 거죠. 기자들로서도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아요. 기사를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가공하거나,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약간 가공해 쓰는 일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요.” (종합일간지 E기자)

“아이템 다양성 측면에서도 퇴보했다고 봐요. 기자는 현장을 뛰는 직업인입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세상의 현안을 자기 철학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자들은 아예 돌아다니질 않아요. 심지어 카페에서 전화로 취재하기도 하지요. 논설위원이나 고참 기자가 쓰는 해설성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종합일간지 B부장)

### (3) 지면 구성과 뉴스 기획

주 52시간제 도입은 신문 지면의 구성이나 뉴스 기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문 매체의 경우 기획기사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자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팀 단위의 기획 아이디어 회의가 줄어들고 기획기사도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이 줄면서 손이 적게 가고, 취재의 품이 들지 않는 기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외부 기고나 전문가 칼럼 등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기자 주도의 기획기사는 점차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획기사의 비중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기자들이 사회적 이슈를 파고드는 의지가 강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기획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파헤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획팀이 줄었어요. 주 52시간제 이후 기자들의 취재열정도 식었고, 팀원 간의 협업시스템도 많이 약화되었어요. 기획을 하고 기획기사를 취재하려면 최소한 팀 차원의 대응이나

TF팀 신설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 거죠. 편집국 차원에서도 긴급 현안 대응별 기획팀 신설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경제일간지 F부국장)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기자들의 글쓰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취재가 줄어들다보니, 취재 능력뿐만 아니라 현안을 파악하는 역량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기고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자들의 이런 평가에는 물론 주 52시간제의 영향도 있지만, 속보 위주의 디지털 저널리즘 확산으로 전통매체들이 단순 보도보다는 해설기사나 오피니언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기자들의 기사생산이 줄어든 대신에 외부 전문가 칼럼은 늘어났습니다. 내부 기자의 기사나 칼럼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글을 받아 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겨나면서 외부 전문가 칼럼 중 유명세가 남다르거나, 또는 글을 잘 쓰는 필자는 언론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종합일간지 C차장)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줄어든 대신에 이를 외부 전문가들이 메워나가는 제작 시스템이 점차 형성되고 있어요. 기자들의 시각이 점차 좁아지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사회문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영역이 줄어들면서 현장의 생생한 기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봐요.” (경제일간지 F부국장)

#### (4) 뉴스 포맷과 자체 뉴스 제작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방송 뉴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뉴스 포맷이나 제작 방식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뉴스의 경우 다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코너나 포맷이 소폭 개편되는 사례가 많아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의 출연 등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또한 방송사의 경우에도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원들이 주 52시간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적인 필요나 관심사에 따라, 전문적인 제작팀 등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낮 뉴스나 토크 프로그램의 경우 기자들의 근무시간 제한 때문에 출연이 원활하지 않아요. 주중에 휴무인 기자가 많다보니 잉여 인력을 빼서 출연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연히 외부 출연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사 J기자)

“SNS 서비스용 기사를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이 요구해요. 영상 디지털 뉴스와 기사형 디지털 뉴스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흐름은 SNS 기사 도달률을 높이려는 회사 방침이지, 주 52시간제 도입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봐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아닐까 싶어요.” (방송사 K 기자)

### 5. 결론과 함의

본 연구자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좁게는 기자들의 취재방식과 뉴스생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넓게는 한

국 저널리즘의 원칙과 근본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에 주목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 언론사 주 52시간 근무제는 원천적으로 기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은 직업 특성상 시간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인이고, 취재시간 만큼 기사가 나오는 게 업무 특성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언론환경의 변화가 취재절차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변화에 따라 산출된 뉴스 콘텐츠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업무시간 단축이 취재절차와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결과로 나타난 뉴스 생산과 한국 저널리즘의 원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슈메이커와 리스 (Shoemaker & Reese, 1996, 2013)의 계층모형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국내 신문사, 방송사, 뉴스 통신사에 종사하는 기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기자와 언론사 조직의 취재와 제작관행, 그리고 뉴스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 언론사 근로시간 단축이 기자 개인의 취재방식은 물론 조직내부 제작관행, 그리고 최종 결과물인 뉴스생산 양태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취재시간의 단축은 물론 기사 다양성과 정보 투명성 하락, 기획기사의 감소, 그리고 치열한 취재경쟁 약화와 같은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온라인 판(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속칭 “서비스용 기사”가 늘어났으며, 기자의 글쓰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획기사와 심층탐사보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뉴스의 품질 하락을 가져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자들의 실제 노동 강도의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선 기자들 사이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대한 고충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기자들은 근무환경

이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의 안정화와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취재원 접촉 방식의 개선 등 조직 안팎으로 취재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 이후 한국 언론계 뉴스제작 현장에는 몇 가지 현상들이 확인된다. 우선 절대 취재시간이 부족해진 점이다. 기자들의 근무 패턴이 주 52시간으로 정착되면서 조기 퇴근과 근무일수 축소가 일반화 되었고, 이에 따라 취재의 연속성 측면에서 뉴스발굴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전에는 기자들이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특종이나 중요한 사건을 발굴했으나,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런 취재기회가 사라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개발해 폭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매체별로 차별화된 스트레이트 뉴스 발굴도 어려워졌다. 마감시간이 근무시간 단축에 맞춰 앞당겨 지면서 취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익은 기사”를 작성해 내보내야 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었다.

둘째는 근무시간 단축 이후 취재원이나 출입처 관리가 부실해진 점이다. 한국 기자들은 취재활동의 대부분을 출입처라는 공간 속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자들의 출입처 방문이 줄어들고, 취재원과의 접촉 횟수 역시 줄어들었다. 출입처 취재원들이 주 52시간제를 빌미로 기자들과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기자와 정보원 간의 오랜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정보원으로부터 깊은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어졌고, 자연히 양질의 뉴스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셋째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게이트키퍼의 부실화이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사실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있다. 뉴스는 게이트키퍼를 통해 사실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김준일, 2019). 그러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게이트키퍼 과정 자체가 축소되면서 잘못된 기사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었



다. 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차장급 부(副)데스크와 부장급 데스크의 교차 검토를 거치고 저녁 회의 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다시 기사를 다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데스크가 출고하면 그것으로 검토가 사실상 끝난다. 데스크의 기자 장악력이 약해져 뉴스제작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중편방송인 채널A 기자의 잘못된 취재방법 사례도 조직의 위계에 의한 게이트키퍼 과정이 생략되면서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다. 게이트키퍼 과정이 줄어들면서 오탈자, 부정확한 보도, 그리고 오보로 이어질 개연성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손상으로 이어지고 저널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된다. 정보의 율고, 그름을 걸러내는 게이트키퍼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투입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속보성을 지향하는 온라인 매체들이 게이트키퍼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의 제약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이 일정한 규칙과 관행에 따라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조직의 “뉴스공장(news factory)”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넷째는 근로시간 단축이 회의시간과 횟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 배분상 회의시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회의시간과 빈도가 줄어들어 부서 간, 팀 간, 또는 팀원 간 기획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보공유가 이전 보다 더 어려워졌다.

다섯째는 현장 취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전통적으로 언론 조직은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른바 “현장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하지만 언론사 조직이 내부적으로 초과 근무를 가급적 하지 말도록 권장하면서 기자들이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한마디로 기자들이 현장취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는 닷처럼 현장에 있거나 취재원을 만났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현장 기자들 사이엔 하루 근무 시

간을 채우면 무조건 “자진 퇴근”하는 관행마저 나타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 ‘뺨치기 취재’(취재 인물을 만날 때 까지 늦도록 취재하는 관행)를 해야 할 신참 기자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한다”며 선배기자에게 문자를 남기고 귀가했다는 인터뷰 사례는 현장을 지키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저널리즘 가치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종은 밤에 나온다”는 무용담은 이제 옛말이 됐다. 대신 기자들은 근무시간 단축 이후 물리적인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 출입처 대신 카페에서 전화로 취재하는 새로운 풍속도마저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는 기자들 간의 비공식 모임이 줄면서 팀워크와 정보공유가 느슨해졌다는 점이다. 부서 회의와 회식이 줄어들에 따라 대면 스킨십을 통한 아이디어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조직 구성원들의 비공식 접촉시간이 줄어들면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서로 나누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기존의 기자들은 부서 선후배, 타 부서 선후배, 출입처 선후배가 회식이나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출입처에서 일어난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동료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비공식 접촉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일곱째는 신문의 경우 판(版) 갈이가 적어지고 있는 점도 새로운 현상이다. 스포츠부는 프로야구 야간 경기를 아예 신지 않거나, 경제부는 미국 고용지표 등 국제경제를 핫뉴스로 처리하지 않는다. 판 갈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추가 비용이 들고 야간 근무자를 더 투입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작관행 때문에 독자가 업데이트 된 뉴스를 아침에 받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누락 기사나 물 먹은 기사가 나오면 언론사 내부적으로 국장을 비롯해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긴장 분위기가 특종보도에 대한 열정과 뉴스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

라인으로 처리하고, 책임을 면피하는 선에서 그친다.

우리는 한국 언론사회에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자 개인의 취재방식이나 조직 내부의 제작관행은 물론 뉴스생산 시스템 등 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사 근무시간 단축은 그동안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온 기자들에게 다소의 여유시간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기자들의 게으른 취재, 언론사 조직의 부실한 게이트키퍼, 숙성이 덜 된 뉴스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기자개인과 언론조직 전반에 걸쳐 뉴스 생산의 양적, 질적 생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뉴스는 노동시간이 투입된 만큼 생산된다. 심층취재, 기획취재, 탐사보도와 같은 양질의 뉴스도 절대적인 취재시간이나 팀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에 발이 묶이면서 뉴스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충실하면서도 설명력 높은 정보를 전달하고, 권력과 사회 환경을 감시하기 어려워졌다. “사건 있는 곳에 기자 있다”는 ‘언론의 현장중심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시견(watchdog)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자가 근로시간을 이유로 현장에서 멀어지면, 확인과 검증이 덜 된 “불량뉴스”의 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허위조작 정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현장에서 떨어질수록 한국 저널리즘의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의 이런 지형변화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기존의 표준화된 제작관행에 개입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저널리즘은 현장(취재원 포함)에 대한 접근과 관찰, 사실에 대한 선택과 확인, 그리고 편집과 분배의 과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은 전통적인 시공간적 뉴스망 해체를 가져오면서 사회 환경을 투명하고, 설명력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약화시켰다.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언론계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이자, 관행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제약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취재와 뉴스 작업관행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취재방법과 절차에 대한 검토, 취재 또는 제작시간에 대한 재분배, 취재영역에 대한 재조정, 내부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게이트 키퍼와 뉴스의 확인절차, 뉴스의 구성과 전달방식, 그리고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디지털 저널리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언론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실험이자 위기이다. “언론의 위기는 저널리즘이 어떠한지 하는지 ‘재 상상하게(reimagine)’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피카드(Pickard, 2019, p. 4)의 말처럼 언론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언론 생태계 변화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뉴스 취재와 생산에서 “시간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뉴스생산 연구에서 시간의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취재관행과 뉴스생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다룬 예는 없었다. 전통적으로 뉴스생산 연구에서 시간의 요소는 주로 기사마감을 의미하는 “데드라인”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사 출고시간에 관한 것이어서 취재시간, 취재활동, 내부 커뮤니케이션, 뉴스확인 절차, 그리고 뉴스생산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은 다르다. 이 제도는 미디어 조직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노동시간의 축소로 모든 작업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유지되어 온 표준화된 작업 시스템의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이 연구가 언론조직의 뉴스생산 과정에 “시간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노동시간의 정도가 뉴스생산 작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도 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인 1년여 간을 연구 대상 시기로 삼으로써 이 제도가 언론

전반에 미친 변화의 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기자들은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심층 인터뷰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다 담지는 못했다. 또한 언론사의 근로시간 단축이 뉴스 생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뉴스 소비자 등 사회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취재방식, 취재원 관계, 작업환경, 뉴스생산물의 품질문제 등 주제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몇몇 기자들을 대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다룬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주 52시간 시행 2년 차 이후 언론사들의 취재방식과 뉴스생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뉴스생산에 미치는 기자들의 인식과 뉴스 수용자인 대중에게 미친 종합적인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이 뉴스콘텐츠와 품질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수 · 이성규 · 최진순 (2015). <혁신 저널리즘>. 서울: 박문각.
- 김경모 (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7-37.
- 김경모 · 박재영 · 배정근 · 이나연 · 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경희 (2009). <한국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 서울: 한울.
- 김사승 (2011). <디지털 생태계의 뉴스 생산 모델>. 서울: 관훈클럽.
- 김수정 (2003). 뉴스 객관성의 영상화: 한국과 미국의 환경뉴스 사례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363-384.
- 김수지 (2018). 노동시간을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 5월호, 34-39.
- 김은미 · 김경모 · 김예란 · 임영호 (2007). <저널리즘의 미래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준일 (2019).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팩트체크, 정보넘어 지식 주는 매체로. <신문과 방송>. 2019년 2월호, 통권 578호.
- 김지은 외 5명 (2016).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의 기자와 뉴스, 제5장 뉴스분석>. 서울: 이체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민병현 · 백선기 (2009). TV 시사다큐멘터리 영상구성방식과 사실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267-295.
- 박재영 외 14명 (2016).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의 기자와 뉴스>. 서울: 이체.
- 박재영 · 이원수. (2007). 인용 (quotation) 과 취재원 적시 (attribution) 에 대한 한미 (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박재영 · 이원수 (2008). 역피라미드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112-154.

- 방은주·김성태 (2014).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뉴스 제작 과정 변화에 대한 국내 언론사 기자들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113-156.
- 송상근·박재영 (2009). <뉴 스토리, 뉴 스타일>. 서울: 나남.
- 안수찬 (2007).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 한국형 이야기 기사쓰기>.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기형 (2010). 현장 혹은 민속지학적 저널리즘과 내러티브의 재발견 그리고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함의. <언론과 사회>, 18권 4호, 107-157.
- 이완수·양영유·신명환 (201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취재관행 변화와 뉴스 생산 양식에 대한 연구>(연구보고서 2019-03). 서울: 뉴스통신진흥회.
-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임종섭 (2019). 언론 위기 국면에 국제 뉴스 통신사들의 사례 분석을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 19권 2호, 112-153.
- 조용만 (2019). 프랑스의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자의 휴식·건강권 보호. <노동법학>, 71권, 39-82.
- 조창호 (2020). 배치적 통제(Allocative Control) 관점에서 본 노조중심 방송의 운영 한계와 문제점. <한국소통학보>, 19권 2호, 49-96.
- 최승영 (2018). 업무관행 변화없이 기자들의 '위라벨'은 불가능하다. <신문과 방송>, 5월호, 67-71.
- 최영재 (2016). 한국의 공영뉴스통신 정체성 연구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 역할과 책무. <언론과 법>, 15권 3호, 97-130.
- 채윤경 (2018). 52시간만 일하고도 신문이 나와. <관훈저널>, 통권 148호, 16-18.
- 최윤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374-395.
- 한승구 (2018). 근로시간 단축, 보도국은 어떻게 바뀔까?. <방송기자>, 43권, 18-19.
- 홍경수 (2009). 뉴스의 탈현실의 수사학 연구.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18-457.

- Awad, I. (2006). Journalists and their sources: Lessons from anthropology. *Journalism Studies*, 7(6), 922-939.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3.
- Bantz, C. R., McCorkle, S., & Baade, R. C. (1980). The news factory. *Communication Research*, 7(1), 45-68.
- Becker, L. B., & Vlad, T. (2009). News organizations and routines. In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 79-92). Routledge.
- Bell, A. (1995). News time. *Time & Society*, 4(3), 305-328.
- Berkowitz, D. (1987). TV news sources and news channels: A study in agenda-building. *Journalism Quarterly*, 64(2-3), 508-513.
- Daum, E., & Scherer, J. (2018). Changing work routines and labour practices of sports journalists in the digital era: A case study of Postmedia. *Media, Culture & Society*, 40(4), 551-566.
- Ericson, R. (1999). How journalist visualize fact.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0(1), 83-95.
- Figueroa, E. J. (2017). News organizations, ideology, and work routines: A multi-level analysis of environmental journalists. *Journalism*, 21, 1486-1501.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 Johnston, J., & Forde, S. (2009). 'Not wrong for long': The role and penetration of news wire agencies in the 24/7 news landscape. *Global Media Journal: Australian Edition*, 3(2), 1-15.



- Levitt, B., & March, J. G. (1988). Organizational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1), 319-338.
- Lewin, K. (1947). Frontiers in group dynamics: Concept, method and reality in science: social equilibria and social change. *Human Relations*, 1, 5-40.
- Magin, M., & Maurer, P. (2019). Beat journalism and reporting.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 McBride, K., & Rosenstiel, T. (2014). Learning the transparency habit. *The new ethics of journalism: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89-92.
- McQuail, D. (2010). *Mass communication theory* (6th ed.). London, UK: SAGE.
- McQuail, D. (1986). Is media theory adequate to the challenge of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the public interest*, 1-18.
- Mont'Alverne, C., & Marques, F. P. J. (2019). News Production Routin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Journalism Studies*, 1-7.
- Muchinsky, P. M. (2009). *Psychology Applied to Work* (9th Ed.). Summerfield, NC: Hypergraphic Press.
- Paulussen, Steve (2012) "Technology and the Transformation of News Work: Are Labor Conditions in (Online) Journalism Changing?" in Eugenia Siapera and Andreas Veglis (eds) *The Handbook of Global Online Journalism*. Malden, MA: Wiley-Blackwell. 192-208.
- Pickard, V. (2019). *Democracy without journalism? Confronting the misinformation socie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Quandt, T. (2008). News tuning and content management: An observation study of old and new routines in German online

- newsrooms. In C. Paterson & D. Domingo (eds.), *Making online news: The ethnography of new media production* (pp.77 ~97). New York: Peter Lang.
- Richard V. Ericson, Patricia M. Baranek, and Janet B. C. Chan (1989). *Negotiating Control: A Study of New Sources*. T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eese, S. D. (2008). Theorizing a globalized journalism. In M. Loffelholz & D. H. Weaver(eds.), *Global journalism research: Theories, methods, findings, future*, 2982-2994. Malden, MA: Blackwell.
- Ryfe, D. M. (2016). *Journalism and the Public*. Malden, MA: John Wiley & Sons.
- Schudson, M. (1986). Deadlines, datelines, and history. *Reading the news*, 79-108.
- S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Norton.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DC Heath.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NY: Longman.
- Shoemaker, P. J., & Reese, S. D. (2013). *Mediating the message in the 21st century: A media sociology perspective*. NY: Routledge.
- Shoemaker, P. J., Vos, T. P., & Reese, S. D. (2009). *Journalists as gatekeeper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93-107). NY: Routledge.
- Tandoc Jr, E. C., & Duffy, A. (2019). Routines in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DOI: 10.1093/acrefore/9780190228613.013.870
- Tuchman, G. (1977). The exception proves the rule: The study of

- routine news practice.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Research*, 6, 43-62.
- Tuchman, G. (1973).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1), 110-131.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umber, H. (Ed.). (1999). *News: A reader*. UK: Oxford University Press.
- Vos, T. P. (2015). Revisiting gatekeeping theory during a time of transition. *In gatekeeping in transition* (pp. 17-38). NY: Routledge.
- Westlund, O., & Ekström, M. (2019). *News organizations and routines*. NY: Routledge
- Wahl-Jorgensen, K., & Hanitzsch, T. (Eds.). (2009).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Y: Routledge.
- Willnat, L., Weaver, D. H., & Choi, J. (2013). The global journalis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cross-national study of journalistic competencies. *Journalism Practice*, 7(2), 163-183.
- Zelizer, B. (2018). Epilogue: Timing the study of news temporality. *Journalism*, 19(1), 111-121.

투 고 일 자: 2020년 07월 05일

심 사 일 자: 2020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09월 05일

## **Abstract**

# **How “Reduction of Working Hours” Changed Coverage and News?:**

Focusing on Reporter's Perception of Changes in News Production and Reporting Practices Depending on the Introduction of a 52-hour Workweek

**Lee, Wan Soo**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Yang, Young Yu**

Visiting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Shin, Myoung Hwan**

Adjunct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change in working hours of “52-hour workweek” affects the news production process of media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reporters working for daily newspapers, broadcasting companies, and news agency to find out h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s changed the news produc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Reporters responded that the coverage time was shortened, the number of contact with beat sources decreased, and that the traditional way of reporting, through face-to-face contact decreased. In addition, reporters responded that gate-keeping process is getting loose within the organization, coverage and editorial meetings have been decreased., and information sharing and teamwork are weakening. Reporters were concerned about their social function as a watchdog as “field coverage” was neglected due to working hours restrictions.

We discussed how working time variable has brought about the changes to the Korean journalism ecosystem with the perspective of reporter access and observation, selection and filtering of facts, and editing and distribution.

**KEYWORDS** 52-hour Workweek, Working Hours Reduction, Reporting Practice Change, News Production Change, Journalism Ecosystem Change